

# 일본의 새 논조와 일제시대의 독도 어업

박 병 섭

韩国 嶺南大学校

# 일본의 새 논조와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어업

박 병 섭\*

## <목 차>

1. 들어가며
2. 일본의 새 논조
3. 일제시대의 독도 어업
4. 시마네현의 전략과 결론

## 【국문초록】

2005년 시마네현(島根縣)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를 제정해 독도문제가 이슈화되자 일본에서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새 논조가 나타났다. 일본외무성의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설을 무조건 지지하는 논조가 많은 가운데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지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고유영토의 말을 피한 시마네현의 홍보 책자 『포토 시마네』161호가 먼저 주목된다. 하지만 물론 시마네현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모리 마사타카(森正孝),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오카모토 아쓰시(岡本

\* 일본 竹島=獨島問題研究넷 대표, half-moon@muj.biglobe.ne.jp

厚) 등이다. 한편 독도를 명확히 한국영토라고 단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고 대신으로 한국도 일본에 양보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논조가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 등에 의해 제시됐다. 이들 논조에 공통되는 것은 해결방안에 어업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을 성하게 하고 있었다는 오해에 기인하여 그들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오해가 있으니, 일찍이 시마네현 어민은 독도에서 어떤 어업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실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해명한다.

근대에 들어서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 어업은 강치잡이가 시작이다. 1903년에 시험적인 강치잡이에 성공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일본에 편입된 후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를 만들어 강치를 남획했다. 이 때문에 강치가 줄자, 그의 장남인 요이치(養一)가 회사를 계승하여 1928년경까지 강치잡이를 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어 모든 어업권을 야하타 초시로(八幡長四郎) 등에게 넘겼다. 야하타 등은 서커스에 팔기 위해 강치를 잡았으나 전쟁 때문에 수요가 줄어, 1941년에 강치잡이를 포기했다.

다음에 해변가 어업(根付漁業)을 살핀다. 1911년 시마네현으로부터 허가된 강치잡이 업자만이 금어구에 지정된 독도에서 전복, 소라, 미역 등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그 해 나카이는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과 미역을 채취했다. 소라는 풍부하지만 질이 떨어져 상품 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채취하지 않았던 듯하다.

나카이부터 어업권을 얻은 야하타 등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5년간만 강치잡이를 하는 김에 전복을 따다. 그 전후는 울릉도민 오쿠무라 헤이타로(奥村平太郎)·료(亮) 부자에게 전복 등의 해변가 어업권을 팔고 야하타 등은 채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래 야하타 등은 남에게 팔 수 있는 해변가 어업권은 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약은 본래 무효이며 오쿠무라 등이 전복을 딴 일은 불법이다. 이 외의 독도 어업은 금지됐으니 고기잡이 등은 있을 수 없

었다. 일제시대 독도는 금어구였다.

이처럼 일제시대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은 강치잡이가 1941년에 포기됐고, 전복 채취 등은 1937년에 포기됐다. 또한 금어구인 독도에서 고기잡이는 있을 수 없었다. 광복 후는 일본인의 독도 주변의 어업이 연합군에 의해 금지됐다. 또한 당시 독도 주변의 고기잡이는 미개발 상태이므로 독도로 출어한 일본 어선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이 발간한 『포토 시마네』는 마침 많은 어선이 독도 주변에서 평화선을 침범하여 나포된 것처럼 기술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어선은 1척도 없었다. 시마네현의 주장에 현혹됐는지 일부 학자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대신 한국은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령 한국이 옛날의 시마네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오직 3명에게 강치잡이와 해변가 어업을 인정할 것뿐이다. 이는 오늘날 아무런 실리를 가지지 못한다.

주제어: 강치잡이, 일제시대, 나카이 요자부로

## 1. 들어가며

최근 독도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일본의 일부에서 새 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일찍이 1987년에 호리 가즈오(堀和生)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밖으로 정한 메이지정부의 지령서를 공개한 후,<sup>1)</sup> 독도에 관한 연구가 서서히 진전한 결과,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인식이 연구자들에게 조금씩 침투했다. 이 인식이 일반인에게도 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가 2000년에 출판한 책 『죽도(울릉도)를 둘러싼 일조관계사』의 역할이 크다.<sup>2)</sup>

1) 堀和生, 「1905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1987.

2)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關係史』, 『多賀出版』, 2000. 한국어판은 권

이윽고 독도문제에 전기가 왔다. 2005년에 시마네현이 조례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탓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서 비등했다. 이 때는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돋보이었는데, 실은 이 때부터 일본 사회에서 독도의 역사가 널리 재검토되어, 그 결과 새 종류의 논조가 탄생했다. 즉 일본외무성의 독도에 대한 주장은 그냥 믿을 수 없다는지,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일어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외무성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시마네현이 채용하지 않았는지, 시마네현이 발간한 홍보 책자 「특집 다케시마」(『포토 시마네』161호)에는 '고유영토'라는 단어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 홍보 책자는 외무성과는 달리, 메이지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 밖으로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즈음부터 독도영유권의 해결 방안도 여러 가지 제안됐다. 그중 새 논조로서 일본은 독도를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는지, 혹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서 양보하는 대신 한국도 양보해 독도 주변의 어업 등을 시마네현 어민에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된다는 주장 등이 쏟아져 나왔다.

본고는 그런 주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일부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시마네현 어민의 '어업권'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즉 광복 전에 시마네현 어민이 독도 주변에서 어떤 어업을 했는지 상세히 검토한다. 단 한말의 독도 어업에 관해서는 이미 필자가 본지 제8호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영유권 문제」 등에서 검토했으니,<sup>3)</sup>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 그 후의 일제시대의 독도 어업을 중심으로 검증하기로 한다.

## 2. 일본의 새 논조

오염·권정 번역, 『獨島와 竹島』, 제이앤씨, 2005.

- 3) 박병섭,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8호, 2009, 153-232쪽;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독도문제를 이슈화하자 일본에서 독도 연구가 활발하게 됐다. 시마네현은 독도문제연구소를 조직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는 입장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또한 외무성도 홍보 책자 「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를 작성하여 고유영토설의 주장을 강화했다.

이런 주장을 비판하고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단언하는 논설이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예로 모리 마사타카(森正孝)를 들 수 있다. 모리는 나이트 세이쥬,<sup>4)</sup>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sup>5)</sup> 박병섭<sup>6)</sup> 등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역사적으로 조선 영토였던 다케시마(독도)'를 강조하여, 일본은 에도(江戸)시대 및 메이지 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sup>7)</sup>

일본의 대표적인 잡지 『世界』 편집장 오카모토 아쓰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조선 침략의 시작인 섬이며, 이 섬의 영유에 고집하는 것은 즉 일본이 조선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sup>8)</sup>고 주장했다.

또한,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도 나이트 세이쥬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독도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제 해결안을 단적으로 말하면 다케시마는 일본제국이 1910년의 한국 병합에 앞서 행한 침략과 점령의 시기에 거의 무력화시켜 무저항이었던 대한제국에서 빼앗긴 섬이란 것이 역사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1951년의 강화조약 제2조에 따라 일본의 영유주장을 취하여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케시마문제의 해결은 이밖에 있을 수 없고 이것만이 '일·한간에 깊이 박힌 가시'를 빼내고 일한·일조 우호로의 길을 열 것이라 생각

4) 内藤正中, 같은 책.

5) 梶村秀樹, 「竹島=獨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史と日本人』, 明石書店, 1992, 315~357쪽.

6) 朴炳涉, 「日本の竹島=獨島放棄と領土編入」, 『姜徳相先生古希·退職記念 日朝關係史論集』, 新幹社, 2003, 137~161쪽.

7) 森正孝, 「竹島(獨島)は日本の領土ではない」, 『統一評論』, 2005. 9.

8) 岡本厚, 「編集後記」, 『世界』, 2008. 9.

된다.)

이토 혹은 모리처럼 명확하게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있다고 단정 짓는 사람은 일본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역시 다케시마는 본래 조선의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sup>10)</sup>”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메이지 시대 태정관이 독도를 일본 영토 밖으로 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되 영유권에 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sup>11)</sup>

한편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되 한국도 일본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 그 대표적인 인사는 언론인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다. 그는 아사히(朝日)신문의 칼럼 ‘다케시마와 독도’에서 “다케시마를 한일의 공동관리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한국이 옹한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섬을 양도해버리면’이라고 몽상한다. 그 대가로 한국은 이용단을 칭찬하여 이 섬을 ‘우정의 섬’이라고 부른다. 주변의 어업권을 장차에 일본에 인정하는 것을 약속, 기타 영토 문제에서는 일본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했다(2005.3.27). 와카미야는 역사적인 검증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독도를 ‘양도’한다고 몽상했으니 일본에서는 ‘국적’의 어명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와카미야가 독도 주변의 어업권을 일본에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이다.

이런 생각은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도 같다. 다카사키는 잡지 『世界』(2005.5)에 실린 “역사문제를 경시하면 안 된다”라는 논설에서 “다케시마문제에 관해서는 영토문제에서 일본이 양보하고, 어업문제에서 한국이 양보하는 것도 일안이다.”라고 적었다. 이는 그의 지론이며 최근에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저는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명명백백한 한국영토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일본영토라는 증거가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1905년에 일본이 취한 몇 가지 조치는 부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이 ‘다케시마는 일본영토’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다시 정치결단으로 다케시마를 한국에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한국측은 시마네현 어민에 관해서는 다케시마 근해에서의 어업을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sup>12)</sup>

마찬가지로 국제법 학자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도 일본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되 한국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한일간의) 가시를 빼내려면 일본으로부터 대담한 타개책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화해의 증표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한국에 양도 혹은 포기하여 한국의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일본해 서쪽의 어업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일한이 각각 자원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울릉도와 오기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를 확정한다. 그리고 다케시마는 자연으로 되돌려 자연보호구역으로서 12해리 어업금지수역을 설정하고, 모든 나라의 과학자들에게 이를 개방한다. 일한에서 이런 내용의 조약을 맺을 것이 어떨까.<sup>13)</sup>

최근에 와서는 도쿄(東京)대학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2009년에 와다는 잡지 『世界』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간직한 채 이 문제 해결을 보류하고, 장차 상황이 변화한 시점에서 해결을 도모하고 싶다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역사를 외면한 태도이다. 더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의 논리를 가진 한국 측의 주장은 부동하게 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더욱더 도발 행위로 받아들여 한층 격렬한 반응을

9) 伊藤成彦, 「竹島問題の本質と解決」, 『マスコミ市民』, 2008. 9, 34쪽.

10) 五十嵐正博, 「竹島(獨島)問題」, 『COLAP IV 関西実行委員会報告集』, 民主法律協会, 2005, 113쪽.

11) 仲尾宏, 「竹島問題はどう考えたらよいか」, 『日韓 新たな始まりのための20章』, 岩波書店, 2007, 120~124쪽.; 内藤正中, 『竹島=獨島問題入門』, 新幹社, 2008.

12) 高崎宗司, 「文化財問題と竹島=獨島問題」, 『国際共同研究 韓国併合と現代』, 明石書店, 2008, 725쪽.

13) 芹田健太郎, 「竹島を『消す』ことが唯一の解決策だ」, 『中央公論』, 2006. 11, 277쪽. 발췌 번역은 「다케시마의 한국주권을 인정하고, 울릉도 기점으로 EEZ 설정하자」, 『新東亜』, 2007. 3.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다케시마는 한국이 50년 이상 실효 지배해 온 섬이다. 일본이 이 섬에 탐낼 가능성은 현재도 장차도 전혀 없다. 따라서 해결안으로 생각되는 제일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를 승인하고 이에 대해 한국이 시마네현(島根縣) 어민의 어업권을 인정하는 것이다.<sup>14)</sup>

이처럼 일본에서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되 그 대가로 독도 주변의 어업권 등을 한국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세다. 그들이 말하는 독도 주변의 어업권이란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다음에 검증한다.

### 3. 일제시대의 독도 어업

#### 1) 강치잡이

독도에서의 강치잡이는 1903년에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등에 의해 시험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해에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강치 가죽이나 기름의 시세가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어부가 독도로 모여들어 강치를 남획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나카이는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정부에게 ‘리양코도 영토 편입 및 대하원(貸下願)’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1905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고 시마네현 관할로 하였다. 시마네현은 나카이 등 4명에게 1905년 5월에 3년간의 강치잡이를 허가했다. 나카이 등은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를 설립하여 1905년부터 매년 독도로 출어했다. 이 회사가 독도에서 포획한 강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1.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의 강치 어획 상황<sup>15)</sup>

연	포획 수	금액(엔)	현재 쌀값 환산(엔) <sup>16)</sup>
1905	1,003	2,559	998만
1906	1,385	5,437	1,968만
1907	1,600	5,940	2,007만
1908	1,680	5,878	2,058만
1909	1,152	4,344	1,634만
1910	679	2,317	845만
1911	796	불명	
1916경	200-300		
1928	약100		회사는 활동 중지

회사는 설립 다음 해부터 3년간은 강치를 약 1,500마리 포획해 5,000엔 이상, 현재 쌀값 환산으로 2,000만엔 이상의 수입을 얻었다. 그러나 강치의 가치는 한 마리당 약 4엔, 현재 쌀값 환산으로 3,300엔 정도이며 아주 싸기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면 강치를 많이 잡아야 했다. 이는 강치의 남획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1910년부터 포획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단 나카이에 의하면 감소의 원인은 그들이 치시마(千島, 쿠릴)열도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했으니, 독도에 출어한 일꾼이 준 탓이라 한다. 그러나 하시오카 도모지로(橋岡友次郎) 아들인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가 시마네현에 제출한 보고서(1951.10.11)에 의하면 포획 수의 감소는 역시 남획에 있다. 하시오카는 아래와 같이 적었다.

매년의 남획에 강치나 기타 어획물은 줄고, 따라서 이익을 올리지 못하여, 드디어 나카이는 사업을 전환하고 치시마 어업에 착수하게 됐다. 그 결과는 실패이며 그 분의 경제는 곤란의 극에 이르렀던 듯하다. 그래서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는 유명무실 같은 존재로 됐으며

15) 隠岐支庁「竹島」,「竹島一件書類」写『竹島資料7』, 島根県立図書館所蔵. 1912년 이후는, 外務省アジア局, 『竹島漁業の変遷』, 1953.

16) 쌀값 환산 방법은 박병섭, 같은 책(2009) 혹은 같은 논문(2009)에 따른다.

14) 和田春樹, 「韓国併合100年と日本 何をなすべきか」, 『世界』, 2009.4, 162쪽.

이후 다케시마 어업은 나카이씨 개인이 독점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여전히 부진하고 그 분의 경계는 드디어 팽박하여, 다이쇼(大正) 13년 사이고초(西郷町) 거주 와카바야시 루이쇼(若林類松)씨를 통해 다케시마 어업권을 저당으로 하여 용자의 의뢰를 받았 다.<sup>17)</sup>

나카이 요자부로는 치시마 열도에서의 어업에 전념하기 위해 1915(大正4)년에 독도에서의 강치잡이 어업의 계속을 시마네현에 신청할 때 명의인을 장남인 요이치(養一)로 변경했다. 이즈음 다케시마어업합자회사는 거의 나카이의 개인기업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나카이의 신청은 수리되어, 1916년부터 강치 어업은 나카이 요이치 이름으로 허가됐다.<sup>18)</sup>

나카이 요이치는 그의 구술에 따르면 1916년에 중학교를 졸업하자 매년 독도로 출어하여 4월 초순부터 7월 하순까지 독도에서 오두막을 짓고 20일만에 한 번씩 식량이나 음료수를 오키도에서 보급 받아 강치잡이를 했다. 강치의 포획 수는 1916년에는 2-300마리에 줄고, 1928년에는 100마리 정도로 감소했다. 이 때문에 회사 경영은 더욱 어렵게 됐다. 더하여 나카이 요자부호가 사이고초에 제빙공장을 건설하자 자금난에 부딪쳤다. 그래서 나카이는 1924년에 사이고초의 와카마쓰를 중개로 하여 하시오카 다다시게, 이케다 고이치(池田幸一, 이케다 기치타로의 장남), 야하타 초시로(八幡長四郎) 등 3명으로부터 독도어업권을 담보로 하여 5,000엔의 용자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의 사업은 부진하여 나카이 요이치는 빚을 갚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나카이는 어업권의 감찰 명 의만 간직하고 사실상의 어업권을 1925년에 채권자들에게 양도했다. 야하타 등 채권자들은 6년간은 강치의 번식을 위하여 포획을 중지했다고 한다.<sup>19)</sup>

1928년 나카이는 감찰 명의인의 입장을 이용하여 시코쿠 다카마

쓰(四國高松)의 야노(矢野)서커스와 독도 강치의 매매를 계약했다. 이 매매계약은 나카이와 야하타 초시로 등 사이에 당연히 분쟁을 일으켰다. 야하타는 시마네현의회 의원의 입장을 이용하여 노자키(野崎) 시마네현 수산과장과 도모하여 나카이를 불러 독도에 관한 어업권 감찰 명의를 나카이에서 야하타 명의로 변경시켰다. 이로 인해 독도의 강치 어업권은 완전히 야하타 등이 가지게 되고 나카이는 강치잡이에서 물러섰다.<sup>20)</sup> 강치잡이 어업 면허인의 변천은 다음과 같다.

- 1905-1908; 나카이 요자부로, 가토 쥬조(加藤重藏), 하시오카 도모지로,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 1908-1916; 나카이 요자부로, 가토 쥬조, 하시오카 도모지로
- 1916-1928; 나카이 요이치, 가토 쥬조, 하시오카 다다시게
- 1928-1931; 나카이 요이치, 하시오카 다다시게
- 1931-1946; 야하타 초시로, 이케다 고이치, 하시오카 다다시게

나카이가 강치잡이를 그만둔 후 하시오카 등이 강치를 실제로 잡은 것은 1933년(쇼와8)이었다. 그들은 강치의 중매인 고베(神戸)의 나카타 츠이치(仲田忠一)로부터 용자를 받아 30마력, 13톤의 발동기선을 입수해 어부 14, 5명을 고용해 매년 독도로 출어했다. 다만 하시오카 자신은 나카이 요이치의 말에 따르면 ‘하오리(일본 두루마기) 어부’이며, 독도로 출어한 일은 단 두 번뿐이다.

강치잡이는 위험하고 중노동이므로 어부의 임금은 두 배, 기본 일당은 1엔50센,<sup>21)</sup> 현재 쌀값 환산으로 3,050엔이라 한다. 그들은 서커스에 팔기 위해 새끼 강치를 생포해 돌아왔다. 야하타 쇼자(八幡昭三)에 따르면 “강치는 태어난지 3개월까지는 사망률이 높으나, 반년이 지나면 사람을 따르지 않고 곡예도 습득하지 않으므로 3개월부터 반년까지는 이쪽(오키노시마쵸 구미(久見)어항 근처의 강, 필자 주)에서 키워서 팔았다”고 한다.<sup>22)</sup> 강치는 중매인 나

17) 『橋岡重藏所蔵資料写 竹島漁業資料』, 鳥取県立図書館所蔵; 『竹島漁場調査報告』, 島根県立図書館所蔵.

18) 『竹島資料7』.

19) 外務省アジア局, 『竹島漁業の変遷』, 1953. 이하에서 관계자의 구술은 모두 이 자료에 따름.

20) 『橋岡重藏所蔵資料写 竹島漁業資料』; 『竹島漁場調査報告』.

21) 『波頭を越えて 竹島リポート 第1部』(2)ダイヤモンドの海, 産経新聞, 2007. 3. 8.

22) 『波頭を越えて 竹島リポート 第1部』(4)アシカの繁殖地, 産経新聞, 2007. 3. 10.

카타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노시다(木下)서커스 혹은 야노서커스에  
게 매각됐다. 이런 강치잡이는 일본이 세계대전으로 참전하는 1941  
년에 이르기까지 9년간 행해졌다. 그 사이에 그들이 잡은 강치 수  
와 매각 금액은 다음과 같다.<sup>23)</sup>

표2. 하시오카 등의 강치 포획 상황

연	포획 수	금액(엔)	이익(엔)	현재 팔값 환산(엔)
1933	8	800	△1,242	△287만
1934	19	1,900	△210	△43만
1935봄	29	4,060	1,230	224만
1935가을	20	4,000	1,700	309만
1936-39	불명		1935년과 비슷함	
1940-41	불명		1934년과 비슷함	
1942이후	0		(중지)	

△는 손해

하시오카 등은 강치를 한 마리당 100엔에서 200엔, 현재 팔값  
환산으로 23만엔에서 36만엔에서 팔았는데 이는 나카이의 매가의  
70배 내지 110배 가격이다. 그 때문에 강치 수는 적으나 매각 총  
액은 나카이의 그것을 웃돌았을 정도였다. 그래도 강치 값은 수입  
강치 25,000엔의 수백분의 일이라 한다. 게다가 강치의 우수함은  
똑같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었다. 그러나 만사 잘된 강치잡이도  
오래 가지 못했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이 수렁에 빠지자  
강치잡이는 1940년경에 부진하게 되고, 드디어 1941년 12월에 일  
본이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하시오카 등은 강치잡이를 포기했다.  
전쟁의 영향을 받아 서커스는 흥행을 할 수 없고, 강치의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 2) 독도의 해변가 어업

### (1) 독도 어장의 특징

독도 어업의 실태를 보기 전에 독도란 어떤 어장인지 먼저 보고  
자 한다. 일제시대 독도에 실제로 출어한 야하타 이사부로(八幡伊  
三郎)가 독도 어장의 특징을 말한 것을 그의 조카 야하타 쇼자(八  
幡昭三)는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다케시마는 보물의 섬

전복이나 소라, 미역, 김, 다시마 등이 굉장히 채취됐다고 합니다. 전  
복은 이쪽(오키, 필자 주) 것보다 훨씬 크고, 미역은 두 배의 길이가  
있습니다.…… 다케시마 주변의 해저는 특이한 지형으로 갑자기  
300m 정도로 깊게 되니 바다의 영양분이 모이기 쉽고, 해조나 전복  
이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sup>24)</sup>

광복 후의 일본 신문도 ‘바다의 보고(寶庫) 다케시마’라는 제목  
으로 독도는 수산물이 풍부하다고 전했다.<sup>25)</sup> 그러나 이런 견해를  
일본의 어업 전문가는 명백히 부정했다. 1953년 6월에 단기간이나  
마 독도 어장을 조사한 시마네현 수산상공부 어정과(漁政課) 관리  
사와 도미조(沢富三) 및 수산과 기술자 이가와 노부오(井川信夫)  
는 독도 어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출장 복명서를 시마네현 지  
사에게 제출했다.

미역, 김의 착생(着生) 면적은 생각보다 협소하다. 지금까지 선전된  
것처럼 얼마든지 채취할 만큼의 자원은 없고, 특히 김에 관해서는 평  
반(平盤) 지형의 바위 면이 없으므로 아주 착생 면적은 좁고 거의 문  
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패류는 전복, 소라, 예보시貝, 가  
사貝 등이 있으며 그 중 전복, 소라는 비교적 많다고 여겨지지만 이  
들의 서식에 적응하는 바위 면이 좁고, 잠수기를 사용하여 채취한다  
면 우선 영속성이 없는 어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지금까지 자칫하면 큰 전복이나 소라가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을 만  
큼 서식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꿈의 섬, 보물의 섬인 것처  
럼 착각을 일으켰으나, 이는 이 섬이 내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가  
운데 있기에 어업자가 가기에는 꼭 적재 능력이 큰 발동기선을 필요  
로 함으로 거의 가지 않았다는 것과, 4월부터 8월까지의 바다가 잔잔

23) 『橋岡重藏所藏資料写 竹島漁業資料』.

24) 清水典之, 「アワビ `サザエの「宝の山」だった竹島漁業をいまに伝える」, 『わし  
ズム』Vol.26, 2009.春, 61쪽.

25) 「海の宝庫 竹島」, 《山陰日日新聞》, 1951.9.26.

한 단기간에 가야 되므로 그리 채취되지 않았으니 연수가 많은 것이 서식하기 때문에 가끔 이것이 채취되어 모든 것이 이렇게 큰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는 이 섬이 내지 연안에 비해 특히 발육 상태가 좋은 조건을 가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실제의 어업 적기는 바다가 잔잔한 5월부터 8월까지의 4개월간 이므로, 1년 가운데 8개월간은 채취의 휴지 기간이다. 이 조건을 내지 해안에 적용하면 내지 해안도 이 섬과 거의 같은 크기로 될 것은 틀림없다.

이 섬의 우뭇가사리는 길이와 질이 좋고 양도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미역은 4월 상순부터 7월까지 채취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6, 7명의 어부로 6월 중에 모조리 채취될 만한 정도의 적은 면적이므로 어업으로는 성립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섬의 수산물로서는 강치, 전복, 우뭇가사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의 한 가지다.<sup>26)</sup>

시마네현 관리사와, 이가와에 의하면 전복이나 소라가 얼마든지 있어 독도는 보물의 섬이라는 전설은 잘못이며, 그런 견해는 단지 채취의 적기가 짧으니 어획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불과한 착각이라고 한다. 시마네현 관리들과 비슷한 견해가 일본 신문에도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독도는, 필자 주) 경제적 가치가 낮으며 강치나 전복이라 하여도 어업회사가 조직적으로 착수하면 곧 없어질 것이다. 정부안에서조차 “소란스러우나 다케시마는 나라는커녕 시마네현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은밀히 말하는 사람도 있다.<sup>27)</sup>

이들은 그 당시의 독도 어장의 특징을 잘 본 것이다. 그런데 시마네현의 조사 목적은 일본에 대한 어업통제선, 즉 맥아더라인이 철폐됐으니 평화선을 무시하고 독도 어장의 개발을 도모한 것이다.

## (2) 전복 채취

독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산물은 전복이다. 전복은 청나라로 수출할 수 있으니 돈벌이가 될 가치 있는 산물이다. 당연히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도 주목했다.

이 회사는 1906(메이지39)년 독도에서 강치잡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독도의 장기 차용을 신청했다. 아울러 전복을 독점적으로 따기 위해 해변가 어업의 면허를 시마네현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은 관유지 차용은 허가했으나, 해변가 어업은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1907년에도 다시 신청했으나, 시마네현은 이 회사에 대한 해변가 어업의 허가는 특혜가 된다는 이유로 오히려 강치 외의 모든 어업을 금지하도록 ‘어업취제(取締)규칙’을 1908년에 개정했다.

그 후 회사는 로비활동을 했는지, 드디어 시마네현은 1911년 12월에 현령(県令) 54호 ‘시마네현 어업취제규칙’을 제정해 독도를 금어구로 지정했으나, 단 허가된 강치잡이 어업자만 독도에서의 해변가 어업을 허락해, 미역, 전복, 우뭇가사리, 김, 소라, 홍합의 채집을 인정했다. 그러나 독도에서의 고기잡이는 허용되지 않았다. 즉 연안어업은 금지됐으니 이는 특필할 만하다.

그런데 이 규칙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에서 전복 등을 따다. 다케시마어렵합자회사의 기록 ‘메이지 44년 생산품 감정장(勘定帳)’에 의하면 회사는 말린 전복을 1911년 6월 3일에 198근, 29일에 30근, 8월 28일에 152근, 도합 380근(228kg)을 팔았다.<sup>28)</sup> 이는 말리기 전의 전복으로 환산하면 2,280kg에 상당한다. 이후는 회사 기록이 없어 전복 채취의 실태는 불명하다.

그런데 나카이 요이치로의 구술에 의하면, 1918-9년경 울릉도의 “일본인 3명이 조선인 십수명을 데리고 다케시마로 와서 전복 등을 어획했으므로 그 어획물을 몰수했다.”고 한다.<sup>29)</sup> 이 울릉도민은 아마 오쿠무라 헤이타로(奥村平太郎)가 고용한 어부들인 듯하다. 오쿠무라는 시마네현 야쓰카군 가가무라(八東郡加賀村) 출신이며, 1907년경 울릉도로 이주해 몇 군데서 통조림 공장을 경영했다고 한다. 그의 장남인 료(亮)의 구술에 따르면 오쿠무라 헤이타로는 오키 어민의 정보나, 다이쇼 연간(1912-1925)에 울릉도의 어선이

26) 『竹島漁場調査報告』.

27) 「竹島 `いっそ`爆破論」, 《朝日新聞》, 1962.11.18.

28) 『竹島資料 7』.

29) 外務省アジア局, 같은 책.



조난해 ‘랑코도(독도)’에 표류했을 때 전복이나 미역, 소라 등이 풍부한 것을 본 자의 체험담을 듣고, 1921년경부터 조선인을 중심으로 출어해 전복, 소라의 밀어를 했다고 한다.<sup>30)</sup>

그러나 오쿠무라는 밀어가 발각된 때문인지 1925년에 야하타 쇼시로로부터 ‘해변가의 권리’를 3년간 1,600엔, 현재 쌀값 환산 207만 엔으로 사서 출어하게 됐다. 단 ‘해변가의 권리’라 해도 야하타는 그런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sup>31)</sup> 독도는 금어구이며 야하타 등 강치잡이업자만이 전복 채취가 허가됐다. 이 허가는 남에게 양도하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해변가의 권리’의 매매는 본래 무효하다. 하여간 오쿠무라는 무효 계약을 맺어 3년간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어하고, 그 후도 계약 없이 2년간 출어를 계속했다고 한다. 그것도 발각됐는지 오쿠무라는 다시 야하타와 3년간 1,600엔으로 두 번째 무효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sup>32)</sup>

오쿠무라 헤이타로에 고용된 자들은 잠수기선 2척, 14명으로 출어했으나, 그 중 2명의 잠수부가 일본인이고, 나머지 12명은 조선인이라 한다. 이들 잠수기선은 5톤 발동기선의 예인을 받아 항해했다. 발동기선의 선원 5명은 선장 외는 모두 조선인이라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 조선인은 독도를 그들끼리 ‘도쿠송’이라고 부르며, 일본인과의 회화에서는 ‘랑코도’라고 부른다고 한다. ‘도쿠송’은 독섬에 유래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독도 영유권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주목되는 증언인데, 이는 이미 논했으므로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는다.<sup>33)</sup>

오쿠무라에 고용된 어부들의 출어기간은 4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이며 하루의 어획량은 잠수부 2명으로 600관(2.2톤)의 전복을 땀다고 한다. 이렇게 오쿠무라의 회사는 1925년부터 1932년까지 독도에서 해변가 어업을 했다. 다음 해부터 앞에 말했듯이 하시오카 등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했고, 그 김에 전복을 땀다. 그

때문인지 오쿠무라와의 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한편 오쿠무라료의 구술에 의하면, 오쿠무라 헤이타로는 그 후도 계약없이 1938년까지 출어했다고 하나 이는 의문이다. 그가 하시오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은밀히 밀어를 6년간이나 계속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하시오카 등의 전복 채취는 시마네현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말린 전복의 수입으로서 1934년에 350엔, 1935년에 800엔으로 기록됐다. 이는 현재 쌀값 환산으로 각각 71만엔, 146만엔에 상당한다. 인건비는 1934년에 가나기(전복 따기) 3명이 240엔, 1935년에 해녀 4명이 600엔으로 기록됐다.<sup>34)</sup> 이들을 현재 쌀값으로 환산하면 일인당 가나기는 16,300엔의 인건비로 237,000엔 벌고, 해녀는 273,000엔의 인건비로 364,000엔 번 셈이 된다. 해녀들의 생산성이 높았다. 그녀들은 조선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sup>35)</sup> 강치잡이로 출어한 요시아마(吉山)의 회상에 의하면 그녀들은 제주도의 해녀이며 일본어도 잘 하고 식사 준비도 했단다.<sup>36)</sup> 당시 제주도는 잠수기 어업에 의한 전복 남획에 해녀들이 생활 기반을 빼앗겨, 해녀들은 조선 각지만이 아니라 일본 각지에도 돈벌이로 가야 할 처지였다. 광복 이전에 울릉도나 시마네현에도 제주도 해녀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sup>37)</sup> 그런 해녀들을 하시오카가 고용한 것이다.

하시오카는 1936년에 관해서는 전복에 의한 수입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해의 전복 수확량은 야하타 쇼자가 정리한 「다케시마 일지(竹島日誌)」에 기록됐다. 야하타 쇼자는 독도로 실제로 출어한 야하타 사이타로(八幡才太郎)의 삼남이다. 그 일지에 따르면 수확량은 6월 9일에 21.6관, 10일에 18.4관, 11일에 12.4관, 12일에 13.4관이다.<sup>38)</sup> 하루 평균 16.5관(62kg)의 전복을 땀던 셈이 된다. 출어

30) 外務省アジア局, 같은 책.

31)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復刻版, 島根県, 1996, 103쪽.

32) 外務省アジア局, 같은 책.

33) 朴炳涉,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2010, 47쪽.

34) 『橋岡重藏所蔵資料写 竹島漁業資料』.

35) 清水典之, 같은 논문.

36) 【波頭を越えて 竹島リポート 第1部】(2)ダイヤモンドの海, 産経新聞, 2007. 3. 8.

37) 李善愛, 『海を越える済州島の海女』, 明石書店, 2001.

38) 清水典之, 같은 논문.

기간에 관해 야하타 사이타로는 1933-7년의 5년간이라 한다. 한편 오쿠무라 료의 앞의 구술에 따르면 그는 1938년부터 1942년까지 야하타 초시와 1년마다 앞의 무효 계약을 갱신하고 전복을 땀다고 하니, 야하타 등의 전복 따기는 그 이전인 1933-7년의 5년간에 한하여 행해졌던 것 같다. 1938년에 그들은 강치잡이에 비해 이윤이 적은 전복 따기 등 해변가 어업의 권리를 불법으로 오쿠무라 료에게 팔았던 것이다.

오쿠무라 료는 전복 따기 외에 1941년에 제주도 출신 해녀 16명을 데리고 독도에 성계 채취로 갔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1943년 이후는 계약이 끊어진 채 독도로 출어하여 전복을 1945년까지 땀다고 구술했다. 그 사이 하시오카 다다시계의 대리인을 칭하는 자가 울릉도로 와서 계약금 1,000원을 요구했으니 그 자 말대로 돈을 주었다고 한다.

어업의 실정인데 오쿠무라 료의 구술에 따르면, 그는 90톤 모선과 20톤 운반선을 독도로 파견하고, 실제의 전복 따기는 잠수기선 2척, 작은 배 5척으로 행했다고 한다. 총 인원수는 40명인데 그 중 감독관 2, 3명이 일본사람이고 기타는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1년에 4번 항해하여 순이익은 약 10,000엔, 현재 쌀값 환산으로 약 1,300만엔이며, 전복은 쓰루가(敦賀)의 '후쿠이겐 원양어업 주식회사(福井県遠洋漁業株式会社)' 및 시모노세키(下関)의 구시야(櫛谷)상점에 독도에서 팔았다고 한다. 그 사이 강치는 포획하지 않고, 단 새끼 강치를 식량으로 했다고 한다.

1941년 12월 일본은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오쿠무라의 독도 어업에도 영향이 나타났다. 오쿠무라 료는 1944년 6월에 군의 명령을 받아 마산의 공장으로 이사하고, 그 뒤를 오쿠무라의 고용인 중 조선인 우두머리 윤상술(尹相述) 및 어선 감독자 김무생(金戊生) 2명이 맡아 독도로 출어했다고 한다.<sup>39)</sup>

이상을 정리하면 전복을 땀 업자는 다음과 같다.

1911년경 나카이 요자부로

1925~1932 오쿠무라 헤이타로(울릉도민), 위법 어업  
1933~1944 오쿠무라 료(울릉도민), 위법 어업  
1944~1945 윤상술 및 김무생(울릉도민), 위법 어업

### (3) 기타 수산물

독도의 기타 수산물로서 김, 미역, 소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산물은 일본인에게는 상품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사정을 일본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소라는 주로 두 섬(동도 및 서도, 필자 주) 중간의 얇은 곳에서 채취하는데 하루에 한 사람이 5, 6관 정도의 채취는 쉽다. 그러나 소라는 소위 '지사자에'라고 칭하는 가시가 없는 큰 것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의 중간의 부드러운 살 외는 질겨서 먹기 힘들다. 낚시는 해안가 바위 위에서 줄을 내리면 1척(30cm) 크기의 통칭 '아나가라' 등을 한 없이 낚을 수 있다. …… 미역의 채취 적기는 이른 봄인데 이 시기는 파도가 높아서 도항이 불가능하며 안전하게 도항할 수 있는 5, 6월에 되면 품위가 떨어지고 거의 상품 가치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sup>40)</sup>

김도 조건은 미역과 비슷하다. 실제로 나카이 요자부로는 1911년 5월에 독도에서 김을 1포(俵) 채취했는데, 품질에 대해 "시기가 늦어서 품위는 열등, 자색빛을 가진다."고 적었다.<sup>41)</sup> 이 김은 상품으로서 팔 수 없었던지 나카이 자신이 샀다고 기록됐다. 이 해 나카이는 독도에서 김 외에 미역을 약 127파(把), 약 720관(2,700kg) 채취했다. 아울러 말린 물고기의 어획량은 714관(2,700kg)이다. 이 물고기는 해안가에서 낚은 '아나가라'인 듯하다. 그런데 물고기를 낚던 일은 위법이다. 해변가 어업 허가 조건에 물고기는 제외됐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나카이의 기록 중에 소라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이다. 아마 소라는 상품가치가 낮기 때문에 나카이는 채취하지 않았던 듯하다. 나카이의 독도 어로는 1928년에 끝났다. 이후 오키도민 하시오카 다다시계 등이 앞에 말한 것처럼 독도에서 전복을 땀으나, 강치 및 전복 외의 어업은 없었던 듯하다.

울릉도민의 어업인데 오쿠무라 헤이타로가 전복과 소라를 채취

40) 『海の宝庫 竹島』, 《山陰日日新聞》, 1951.9.26.

41) 『竹島資料 7』.

39) 外務省アジア局, 같은 책.

했다고 한다. 또한 오쿠무라 료의 구술에 따르면 울릉도 저동의 김기수(金基守)가 독도에서 미역을 채취했다고 한다. 이 미역 채취는 일본 법률상 위법이지만 큰 의미를 가진다. 이 미역 채취가 광복 후에도 계속된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강치와 전복 외의 어업은 다음과 같다.

1911년경, 나카이 요자부리가 미역과 소량의 김을 채취, 동시에 물고기를 위법으로 낚음.

1921년경, 오쿠무라 헤이타로(울릉도민)가 위법으로 소라를 채취.

1945년경, 김기수(울릉도민)가 위법으로 미역을 채취.

이 중에서 나카이가 미역과 소라를 채취한 것 외는 모두 위법이다. 이 외에 연안어업 등은 전혀 없었다.

#### 4. 시마네현의 전략과 결론

시마네현이 2006년에 발간한 홍보 책자 『포토 시마네』161호 「특집 다케시마」는 독도 어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케시마(한국명·독도)에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전부터 오키도민들이 건너가 오랫동안 강치 등 어로를 행하고 왔다. 그러나 돌연한 리라인(평화선, 필자 주) 설정 탓으로 상황은 일변. 65년에 일한기본조약과 일한어업협정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300척을 넘는 일본 어선이 한국 측에 나포됐다. 그 중 시마네현 어선은 11척이며 114명의 선원이 연행 당했다.<sup>42)</sup>

시마네현은 강치잡이 어업이 평화선 설정 탓으로 돌변했다고 적었으나, 실은 강치잡이는 오키도민이 스스로 1941년에 포기한 것이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이 수렁에 빠져, 서커스에 팔던 강치의 수요가 점점 줄어, 드디어 1941년에 일본이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강치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강치 외의 어로는 위법

어업을 제외하면, 전복 따기가 1937년에 시마네 어민들의 사정으로 인해 끝났고, 미역 채취는 늦어도 다케시마어업합자회사가 활동을 중지한 1928년에는 끝났다. 그리고 김은 도항 시기 관계상 상품 가치가 떨어져 거의 채취하지 않았다. 기타 어업도 거의 없었다. 특히 고기잡이는 독도가 금어구였으니 있을 수 없었다. 광복 직후는 일본 어선이 독도로 출어하는 것 자체가 연합군의 소위 맥아더라인 등에 의해 금지됐다. 이처럼 강치잡이 등 어로가 중지된 것은 평화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맥아더라인이 철폐된 후, 1954년에 일본은 독도에서의 어로 실적을 일부러 만들기 위해 일본 순시선이 어부 야하타 나오요시(八幡尚義)와 그의 배를 순시선에 태우고 평화선을 무시해 독도로 가고, 야하타에게 미역 채취를 시킨 일이 있었다.<sup>43)</sup> 이는 독도 주변에서 일본 어민의 어업이 전혀 없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이므로 시마네현이 독도 어장을 개발해 어민의 출어를 도모하기 위해 1953년에 특별히 독도 어장을 조사한 것이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은 홍보 책자에서 일본 어선이 독도 주변에서 마침 평화선을 어기고 많은 어선이 나포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그런 어선은 1척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관해 후쿠하라 유지(福原裕二)는 “1965년까지 한국에 나포된 어선의 총계는 229척……관건이지만 다케시마/독도 주변 해역에서 나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후의 조사에서 일본의 게 통발 어선 1척이 한국에 나포된 일이 판명됐다. 더 조사 중이지만, 이 1척은 다케시마/독도 주변 해역에서 나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44)</sup>”고 적었으나 이는 평화선과는 무관하다. 이유는 일본 산인 연해(山陰沖)에서 게 통발 어업이 시험적으로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67년, 즉 평화선이 철폐된 후이기 때문이다.<sup>45)</sup> 덧붙이자면 후쿠하라가 말하는 나포된 배는 1989년에 나포된 것 같다. 아사히신문

43) 島根県, 같은 책, 17쪽.

44) 福原裕二, 「‘竹島’関連言説の検討」, 『総合政策論叢』17호, 島根県立大学, 2009, 72쪽, 75쪽.

45) 富山県水産試験場·島根県水産試験場·鳥取県水産試験場, 『ベニズワイの資源と生態に関する研究報告書』, 1988, 2쪽.

42) 島根県, 같은 책, 15쪽.

(1989.11.17)는 “한국의 해양 경비 당국에 의하면 그 배(제66 다이 키치마루(大吉丸), 필자 주)는 15일 오후 6시 넘어 다케시마의 서남쪽 약11km 부근에서 게 어로를 하던 중 경비정에 의해 ‘영해내의 불법 조업’을 이유로 붙잡혔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독도 주변에서 평화선을 어기고 나포된 어선이 1척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마네현이 그런 마땅치 않은 설명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본인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평화선 내의 나포를 감히 독도와 연결시켜, 마침 과거에 시마네현 어민이 독도 주변에서 성하게 어업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미고, 시마네현에 있어서 독도가 어업 면에서 얼마나 소중한 섬인가를 호소하려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 목적은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 시마네현의 영향을 받았는지 일부 학자들이 앞에 쓴 것처럼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 어업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마네현 어민의 과거의 독도 어업이란 특별히 허가를 받은 어민만이 금어구인 독도에서 강치를 잡고 전복 등을 딸 수 있었던 것뿐이다. 더구나 이 강치잡이와 전복 채취도 그들이 스스로 포기한 상황이다. 가령 일본의 일부 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마네현 어민의 과거의 어업권을 다시 한국정부가 인정한다면, 그것은 야하타 초시로, 이케다 고이치, 하시오카 다다시게 등 3명 혹은 그 후손들에게 강치잡이와 전복 따기 등 해변가 어업을 허용할 것뿐이다. 이외에 시마네현 어민의 독도 어업에 관한 기득권은 없다.

그런데 지금 독도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강치가 한 마리도 없고, 전복도 거의 없으니, 과거의 시마네현 어민의 어업권을 한국정부가 인정해 보았자 시마네현 어민은 실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래도 그런 어업권을 인정하는 것이 독도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면 한국정부가 3명의 어업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外務省アジア局, 『竹島漁業の変遷』, 1953.  
 島根県, 「特集 竹島」, 『フォトしまね』161호, 2006.  
 隠岐支庁「竹島」, 「竹島一件書類」写, 『竹島資料7』, 島根県立図書館所蔵.  
 『橋岡重蔵所蔵資料写 竹島漁業資料』, 鳥取県立図書館所蔵.  
 『竹島漁場調査報告』, 島根県立図書館所蔵.  
 ≪朝日新聞≫.  
 ≪産経新聞≫.  
 ≪山陰日日新聞≫.

### 2. 단행본 및 논문

- 富山県水産試験場・島根県水産試験場・鳥取県水産試験場, 『ベニズワイの資源と生態に関する研究報告書』, 1988.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多賀出版, 2000.  
 권오엽·권정 번역, 『獨島와 竹島』, 제이앤씨, 2005.  
 -----, 『竹島=獨島問題入門』, 新幹社, 2008.  
 광진오·김현수 번역, 『한일간 독도·죽도 논쟁의 실체』, 책사랑, 2009.  
 박병섭, 『한말 울릉도·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 「한말의 울릉도 어업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8호, 153~232쪽.  
 -----,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獨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32号, 2010, 33~64쪽.  
 -----, 「日本の竹島=獨島放棄と領土編入」, 『姜徳相先生古希・退職記念日朝関係史論集』, 新幹社, 2003, 137~161쪽.  
 梶村秀樹, 「竹島=獨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史と日本人』, 明石書店, 1992, 315~357쪽.  
 仲尾宏, 「竹島問題はどう考えたらよいか」, 『日韓 新たな始まりのため』, 岩波書店, 2007, 120~124쪽.  
 高崎宗司, 「文化財問題と竹島=獨島問題」, 『国際共同研究 韓国併合

と現代』, 明石書店, 2008, 725쪽.

-----, 「歴史問題を軽視してはならない」, 『世界』, 2005.5, 88~93쪽.

福原裕二, 「『竹島』関連言説の検討」, 『総合政策論叢』 17호, 島根県立大学, 2009, 61~81쪽.

田村清三郎, 『島根県竹島の新研究』復刻版, 島根県, 1996.

李善愛, 『海を越える济州島の海女』, 明石書店, 2001.

清水典之, 「アワビ `サザエの『宝の山』だった竹島漁業をいまに伝える」, 『わしズム』 Vol.26, 2009.春, 60~63쪽.

堀和生, 「1905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1987, 97~125쪽.

森正孝, 「竹島(独島)は日本の領土ではない」, 『統一評論』, 2005.9, 78~81쪽.

岡本厚, 「編集後記」, 『世界』, 2008.9.

伊藤成彦, 「竹島問題の本質と解決」, 『マスコミ市民』, 2008.9, 26~34쪽.

五十嵐正博, 「竹島(独島)問題」, 『COLAP IV 関西実行委員会報告集』, 民主法律協会, 2005, 109~115쪽.

芹田健太郎, 「竹島を『消す』ことが唯一の解決策だ」, 『中央公論』, 2006.11, 268-277쪽. 발췌 번역은 「다케시마의 한국주권을 인정하고, 울릉도 기점으로 EEZ 설정하자」, 『新東亜』, 2007.3.

和田春樹, 「韓国併合100年と日本 `何をなすべきか」, 『世界』, 2009.4, 162~169쪽.

## 【Abstract】

### New Argument in Japan and Fishery off Dokdo by Shimane fishermen

Since Shimane prefecture enacted a Shimane ordinance, "Takeshima's day" in 2005, Dokdo problem became a big issue in Japan. Many opinions supported an insistence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hat Takeshima was an inherent part of the territory of Japan. While, New opinions to oppose it were presented by many people. For instance, Masataka Mori asserted that Dokdo was Korean's territory. Also, Soji Takasaki, Haruki Wada and etc. asserted that Japan should give up to claim for Dokdo and Korea should compromise with Japan at fishery off Dokdo. They might think of that a lot of Shimane fishermen went to Dokdo on a fishing expedition. However, it is misunderstanding. Only a few fishermen went to Dokdo as this article clarified history of fishing and hunting at Dokdo.

In 1903, Yozaburo Nakai started sea lion hunting at Dokdo. He got a lisenca for hunting sea lions at Dokdo from Shimane prefecture and established a company, Takeshima fishing and hunting company, after Japan government incorporated Dokdo into Shimane prefecture. The company caught sea lions in excess number. So, Their take got worse every year. Yoichi Nakai, a son of Yozaburo, did not improve business and transfered of right for hunting to Choshiro Yahata and etc. in 1928.

They hunted sea lions and fished abalones at Dokdo. They often transferred right of fishing to Heitaro Okumura who lived at Ulleungdo. But, it was illegal, because they had not such transferable right. They stopped fishing in 1937 and hunting in 1941. There was no other fishing, nor hunting at Dokdo.

Key words: Sea lion hunting, The age of Japan's reign, Yozaburo Nakai.

이 논문은 2010년 11월 10일에 발표하여  
2010년 12월 1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10년 12월 30일 간행함